

전후 유럽에서의 “악(惡)의 문제”*

토니 주트(Tony Jutd)**

김 주 만***

[옮긴이의 말] 토니 주트는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를 전공했고 이후 근대 유럽사 전반에 대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가이자, 해박한 역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제 정세와 시사를 논했던 명석한 평론가였다. 본 소논문에서 주트는 한나 아렌트 덕분에 우리에게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악(惡)”에 대한 담론의 역사를 살피고, 그것이 노정하는 난제를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비록 주트가 이 글에서 아렌트의 개념과 주장을 직접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아렌트의 입장과 태도가 이 글의 주요 모티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트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곤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쇼아(Shoah: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렌트가 이해하고자 했던 절대적인 악이었는데, 실제로 전후 유럽에서

* 이 글은 다음의 번역이다. Tony Jutd, “The ‘Problem of Evil’ in Postwar Europ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February 14, 2008, 33–35.

번역에 관한 저작권은 영국의 와일리 에이전시를 통해 획득했다 (“The ‘Problem of Evil’ in Postwar Europe by Juman Kim. Copyright © “The ‘Problem of Evil’ in Postwar Europe,” first appeared i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in 2008. Copyright © The Estate of Tony Jutd 2015, used by permission of The Wylie Agency (UK) Limited.”).

[옮긴이 주]로 표시하지 않은 모든 각주는 원저자의 것임을 밝힌다. 번역어 선택과 유편문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번역 저작권을 승인해 준 제니퍼 호만스 교수와 지난 2010년 투병하는 와중에도 친절을 베풀어 준 고(故) 토니 주트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토니 주트(1948–2010)는 대표적인 지성사가이자 정치사가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미국의 뉴욕대학교(NYU)에서 오래 가르쳤다. 주트는 2008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2010년 8월에 사망했다.

*** 타우슨 대학교(Towson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 및 ‘법과 미국 문명’ 전공 주임 교수

는 이 “악의 문제”가 전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유럽인들은 오히려 한동안 이를 외면했었다. 둘째, 반대로 최근 서양에서는 홀로코스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 진다. 그러나 “악” 개념이 이제는 도리어 너무 남용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특정 정치 집단들의 목적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악의 문제”에 대한 냉소주의가 조장되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를 외면한 종전 직후에도, 그것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작금에도, 정작 “악의 문제”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성찰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트가 여기서 골몰하고 있는 난제다. 이 글은 20세기에 자행된 “악의 문제”에 대응해 온 각기 다른 집단들의 역사를 훌륭히 소개함과 더불어,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악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일깨운 아렌트 식의 “악의 평범성”론 뿐 아니라, 같은 것이 너무 자주 남용될 때 벌어지는 “의미의 축소와 둔감화 효과”를 뜻하는 “악의 평범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내가 열여섯의 나이에 처음으로 읽었던 한나 아렌트의 저작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였다.¹⁾ 나에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여전히 아렌트를 상징하는 책이다. 이 책이 아렌트의 저작 중에 가장 철학적인 것은 아니다. 이 책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며, 아렌트의 글 중에서 단연코 가장 대중적인 작품도 아니다. 나조차도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렌트가 내린 결론은 열렬한 젊은 사회주의적 시온주의자였던 나를 심히 불편케 했다. 그러나 그 때 이후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야말로 한나 아렌트의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불쾌한 주제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공식화된 지혜를 따르지 않기, 비판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유발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인된 의견의 순쉬운 평화를 어지럽히기 등 말이다. 나는 “평화의 훼방꾼”인 아렌트를 기억하며, 아렌트의 정치적 저작들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배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한나 아렌트는 1945년 유럽에서의 종전 직후에 쓴 에세이들 중 한 편

1) 이 논문은 2007년 11월 30일에 독일의 브레멘(Bremen) 시로부터 이 해의 한나 아렌트 상(The Hannah Arendt Award)을 수상한 기념으로 행한 강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지배한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지적 삶에서는 악의 문제(the problem of evil)가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²⁾ 물론 한 가지 측면에서 그는 전적으로 옳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인들은 죽음, 그 중에서도 그 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전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기억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전간기(戰間期) 유럽의 시, 소설, 영화, 예술 작품들은 폭력과 죽음의 이미지들로 뒤덮였고, 대개 그것들은 폭력에 비판적이었지만 때로는 에른스트 윙어(Ernst Jünger)나 드류 라 로셀(Drieu La Rochelle)과 같이 향수 어린 시각으로 폭력에 접근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장한 폭력 세력들은 전간기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과되어 민간의 삶에 침투했다. 준(準) 군사조직의 분대들, 정치적 암살, 쿠데타, 내전들, 혁명들과 같은 형태로 말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력에 대한 승배는 대부분 유럽인의 삶에서 사라졌다. 이 전쟁 동안에 폭력은 군인들 만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을 향했었다(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망자의 상당수는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점령 하에서, 인종 청소나 대량 학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유럽의 모든 국가가 완전한 소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투의 영광과 죽음의 명예에 관한 환상의 여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하게도 남은 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잔인성과 범죄에 대해 널리 퍼진 친숙함이었다. 아렌트와 같은 예민한 관찰자의 시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유럽대륙이 직면한 강박적인 물음이 될 것은 자명해 보였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의 한 민족(독일인들)이 다른 민족(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착수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질문들 말이다. 그것이 그가 “악의 문제”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했던 바이다.

2) "Nightmare and Flight," *Partisan Review*, Vol.12, No.2 (1945), 이후 Jerome Kohn 에 의해 편집되어 출간된 *Essays in Understanding, 1930-1954* (Harcourt Brace, 1994) 에 수록됨, pp.133-135. (한국어판: 한나 아렌트, 『이해의 에세이 1930-1954, 홍원표, 임경석, 김도윤 역, 텍스트, 2012)

그렇다면,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렌트가 정말 옳았다. 그러나 꽤 자주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요점을 파악하는 데는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히틀러의 패배와 뉘른베르크(Nürnberg/Nuremberg) 재판 이후에 법률가와 입법가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들”(crimes against humanity)과 그 때까지 이름조차 없었던 새로운 범죄를 정의하는 것(“대량학살”)에 대해 큰 관심을 쏟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바로 얼마 전에 저질러진 야만적인 범죄들을 그들이 법정에서 정의하는 동안, 유럽인들 일반은 최선을 다해 그런 범죄들을 잊었다. 최소한 이런 측면에서는 아렌트가 틀렸다. 적어도 잠시 동안에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수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악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그 문제를 단호히 외면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쇼아(Shoah: 유럽의 유대인들에 대해 시도되었던 대량학살)는 오랫동안 유럽(혹은 미국)의 전후 지적 삶에서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지식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할 것 없이)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무시했다. 왜 그랬을까?

동유럽에서는 그럴만한 네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유대인에 대한 전쟁기 최악의 범죄가 그곳에서 행해졌다. 물론 그러한 범죄들은 독일인들이 주도한 것이지만, 각 지역의 민족들(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라트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등) 중에 자발적인 협력자들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많은 지역에서는 거기서 자행되었던 일들을 잊고 최악의 참사 위에 베일을 씌울 만한 강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³⁾ 둘째로 많은 비(非)유대인 동유럽인들 스스로가 (독일인들과 러시아인들 등의 손으로 자행된) 잔학한 행위의 희생자였고, 그들이 전쟁을 기억할 때 그들은 유대인 이웃들의 고통을 대표적인 것으로 떠올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고난

3) 비참한 예로는 다음을 볼 것. Jan Gross, *Neighbors: The Destruction of the Jewish Community in Jedwabne, Pol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과 상실을 생각했다.

셋째로, 대부분의 중앙유럽과 동유럽 지역은 1948년까지 소련의 통제 하에 놓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소련의 공식적인 설명은 그것이 반(反)-파시즘 전쟁(혹은 소련 내부에서는 “위대한 애국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모스크바는 히틀러를 우선적으로 파시스트이자 민족주의자로 보았었다. 히틀러의 인종 차별주의는 중요성이 훨씬 덜 했다. 물론 소련의 영향권 내에서 사망한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소련의 손실로 계산되었지만, 역사책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기념에 있어서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Jewishness)은 평가절하 되거나 심지어 무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산당의 지배를 몇 년 받고 나자 독일의 점령에 대한 기억은 소련의 억압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되었다. 유대인들의 몰살은 더욱 더 심하게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환경이 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도 비슷한 망각이 있었다. 전쟁기 점령(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1943년 이후 이탈리아)은 모욕적인 경험이었고, 전후 정부들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과 다른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잊고 그 대신에 영웅적인 저항 운동, 민족적 봉기, 해방운동, 순교자 등을 강조하는 편을 택했다. 1945년 이후 여러 해 동안, 사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샤를르 드 골같은 사람들조차 의도적으로 영웅적인 고난과 용기 있는 대중적 저항의 민족 신화(national mythology)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었다. 전후 초기 서독의 국가적 분위기도 독일인들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자기-연민(self-pity)이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적들이 달라지면서, 현재의 동맹들의 과거 범죄를 강조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프랑스인, 혹은 네덜란드인, 혹은 벨기에인, 혹은 이탈리아인) 유대인의 고통이나 그것을 낳은 특유한 악을 상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유명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46년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그의 아우슈비츠 회고록인 『이것이 인간인가』(Se Questo è un uomo)를 이탈리아의 주요 출판사인 에이나우디(Einaudi)에 넘겼을 때 즉석에서 거절당했던 것이다. 그 당시와 그 후 얼마 동안에, 나치즘의 공포를 상징했던 곳은 아우슈비츠(Auschwitz)가 아니라 베겐-벨젠

(Bergen-Belsen)과 다카우(Dachau)였다. 인종 차별의 희생자들보다는 정치적 추방의 희생자들을 강조하는 것이 전쟁기의 민족적 저항에 대한 전후의 설명을 재확인하는 데 더욱 잘 부합했다. 레비의 책은 마침내 출판되었지만, 작은 지방 출판사에서 단 2500부만이 출판되었다.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많은 책들이 피렌체에 있는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다가 1966년 대홍수 때 파손되었다.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 범죄들에 대해서도 콤플렉스가 없는, 소위 승리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자란 그 시절의 내 경험을 통해서도 쇼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사람들이 학계와 언론 할 것 없이 그 주제를 열띠게 토론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 내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근대사 공부를 시작했던 1966년까지도, 비시 정부의 역사를 포함한 프랑스사를 배울 때 유대인들이나 반(反)-유대주의가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전무했다.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나치의 프랑스 점령, 비시 정부에서의 협력자들, 그리고 프랑스 파시즘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영어 문헌과 프랑스어 문헌 할 것 없이, ‘최종 해결책’(the Final Solution)⁴⁾과 관련된 프랑스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유대인이고, 내 가족 중 일부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는 유대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침묵은 꽤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제와 그때를 회상해 본다면, 받아들이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왜 비정상인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조차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제시했던 침울하게 단순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적응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란 없다. 특히 만약 그가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더욱 그렇다.”

4) [웁긴이 주] ‘최종 해결책’(the Final Solution)이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독일어 원어: Endlösung der Judenfrage)의 줄임말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실행한 유대인 말살 정책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 새로운 세대의 호기심, 그리고 아마도 국제적 긴장의 완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0년대 이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⁵⁾ 무엇보다도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참사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서독인들은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벌인 전쟁 범죄들의 심각함과 스스로가 깊어져야 할 책임성의 막대한 크기에 대해 각별히 인식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벌어진 유대인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점점 더 친숙한 것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특히 유럽의 [동서]분리의 종식 이래로,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사과들, 국가적 기념지들, 기념물들, 그리고 박물관들은 평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공산권의 붕괴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의 고통이 공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쇼아는 보편적인 참고사항이다. '최종 해결책'의 역사, 혹은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모든 곳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필수 항목이다. 실제로 미국의 학교들과 심지어 영국의 학교들 중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의 유일한 근대 유럽사가 오직 이 주제 뿐인 경우도 있다.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에서의 유대인 몰살에 대한 무수히 많은 기록들과 개작된 이야기들, 그리고 연구들이 있다. 특정 지역을 다룬 전문 연구, 철학적 에세이,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조사, 회고록, 소설, 영화, 인터뷰 기록을 비롯하여 그 외 다른 것들도 많다. 한나 아렌트의 예언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악의 문제에 대한 역사가 유럽인들의 지적인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테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은 괜찮은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주의 깊게 살펴 왔고, 그것을 정확히 명명했고, 그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맹세했으니 된 것인가? 나는 그렇게 확신할

5)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나의 책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Penguin, 2005)의 에필로그("From the House of the Dead")를 볼 것.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쇼아에 관하여 우리가 요즘 보이는 강박 관념에 기인하는 다섯 가지의 난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양립할 수 없는 기억들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서유럽이 ‘최종 해결책’의 기억에 대해 주목하는 바는 이제 보편적이다(비록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이해할만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발전이 더디지만).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 “유럽”에 편입한 “동쪽” 국가들은 내가 앞서 제시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과 그것의 교훈에 대하여 매우 다른 기억을 계속 지니고 있다.

사실 소련이 붕괴하고 그 결과로 공산주의가 자행했던 범죄들과 실패 사례들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게 되면서, 독일과 소련 양자 모두 때문에 동유럽이 겪어야 했던 시련들이 그간 더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서유럽과 미국이 아우슈비츠와 유대인 희생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때때로 격한 반응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교양 있고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의 청중으로부터 왜 서유럽 지식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대량학살에 그토록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백만의 비(非)-유대인 희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쇼아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더-나이세(Oder-Neisse) 국경선⁶⁾ 동쪽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 사는 우리들은 이 같은 반응이 아마도 싫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만 한다. 유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역사적 정확성과 과잉 보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서유럽인들은 전쟁기 유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쪽을 선호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늘 생각하도록 조장된다. 1945년 이후 첫 몇 십년 동안에는 히틀러가 벌인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스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가스실이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 요즘 학생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곧 홀로코스트에 관한 이야기다.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

6) [웁긴이 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을 말한다.

대전의 중심적인 윤리적 문제는 사실 “아우슈비츠”인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처했던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조차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슬픈 진실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기획이었던 것은 오직 두 집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였다. 그 두 집단은 바로 나치당과 유대인 자신들이었다. 현실적으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졌다. 각자는 자신들 고유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때로는 유일하게) 홀로코스트의 프리즘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항상 좋은 역사 교육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기 점령지들의 실제 경험에서보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홀로코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악을 “평범한” 것이라 부르며 의도한 것과 같이, 만약 우리가 악의 진정한 중요성을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과멸이 진정 무시무시한 까닭은 그것이 너무도 중대한 일이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의 세 번째 문제는 “악”의 개념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근대 세속사회는 “악”의 관념과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다. 우리는 좋음과 나쁨, 옳은 것과 그른 것, 범죄와 처벌에 대해서 보다 합리주의적이고 법적인 정의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악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담론이나 심지어 정치적 담론에도 다시금 천천히 나타났다.⁷⁾ 그러나 ‘악’의 개념이

7) 확실히, 가톨릭 사상가들은 악의 딜레마를 다루는 이러한 마지못한 태도에 공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코와코프스키(Leszek Kolakowski)의 에세이 "*The Devil in History*" 와 "*Leibniz and Job: The Metaphysics of Evil and the Experience of Evil*"을 볼 것. 둘 다 최근에 다른 에세이들과 함께 다음에 책에 수록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Leszek Kolakowski, *My Correct Views on*

우리의 공적인 언어에 다시 유입된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몰살은 한편으로 단일한 범죄로, 전무후무한 악으로, “Nie Wieder!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례와 경고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매우 상이하고 전혀 유일하다고 볼 수 없는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유일한”) 악을 상기시킨다. 최근 몇 년간 정치가들, 역사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과 대량학살의 결과들을 묘사하기 위해 ‘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캄보디아와 르완다, 터키와 세르비아, 보스니아와 체첸, 콩고와 수단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히틀러 자신은 종종 “악”의 실체와 현대 독재자들의 의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기되었다. 우리는 북한과 이라크, 시리아와 이란 등등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 “히틀러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친숙하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용어의 남용은 악이라는 개념이 이제 유발하는 냉소주의를 형성하는 데 크나 큰 기여를 했다.

만약에 히틀러, 아우슈비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유일한 악의 전형이라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나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혹은 이제 막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경고를 듣는 것일까? 어느 누군가가 프랑스의 유대 회당(synagogue) 벽을 반(反)-유대주의적 낙서로 손상할 때마다, 우리는 “유일한 악”이 다시 한 번 우리 곁에 있다고, 이는 1938년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는 경고를 듣는다. 우리는 일상적인 죄나 우둔함, 편견, 기회주의, 선동, 그리고 광신과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진정한 악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단히 매혹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상당히 근대적이고, 그

Everything (St. Augustine's, 2005; 이 책은 내가 2006년 9월 21일 자 *The New York Review of Books*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토마스 만(Thomas Mann)에 의해 인상적으로 묘사된 형이상학적 대면에서, 우리 근대인들은 보통 나프타(Naphta)보다 제템브리니(Settembrini) 편을 선택한다. ([옮긴이 주]: 제템브리니와 나프타는 토마스 만의 『마의 산』 [Der Zauberberg]에 나오는 등장 인물로 주인공인 한스 카스토르프(Hans Castorp)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설파하는 대화 상대자들이다. 제템브리니는 인문주의, 계몽주의, 이성, 진보 등을, 나프타는 신비주의, 부조리, 반동 등을 각각 상징한다.)

래서 정말 진정으로 악마적이었던 20세기의 극좌파와 극우파의 정치적 종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잊어 버렸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곳에서 악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악을 인식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60년 전에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의 의미를 결코 파악하지 못할까 봐 우려했었다. 오늘날 우리는 늘 “악”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악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나의 네 번째 관심은 우리가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에너지를 오직 하나의 문제에 집중할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편협함의 대가가 오늘날 테러리즘이라는 악과 “테러에 대한 전지구적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박적 집착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테러리즘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테러리즘은 당연히 존재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지 여부도 아니다. 당연히 그들과 싸워야 한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오로지 단일한 적에만 집중하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수많은 보다 경미한 범죄들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악들을 방지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게 할 것이냐이다.

동일한 주장이 우리 시대가 반(反)-유대주의의 문제에 대해 집착하고 반(反)-유대주의를 다른 것들과 필적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단언하는 것에 적용된다. 반(反)-유대주의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문제이다. 마치 테러리즘처럼 반(反)-유대주의 역시 그것이 경미한 수준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겼던 결과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반(反)-유대주의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 아니며, 다른 범죄들과 다른 고난을 무시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리즘이나 반(反)-유대주의를 그 특수한 맥락에서 분리하여 그것들을 서양 문명, 민주주의,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대좌(臺座)에 올려

놓고, 그 대표적인 옹호자들을 영구적인 전쟁의 표적으로 삼는다면, 이 시대의 수많은 다른 난제들을 간과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 아렌트는 역시 할 말이 있었다. 전체주의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쓴 그는 전체주의가 열린 사회들(open societies)에 일으킬 위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 “전체주의”라는 것은 오늘날의 테러리즘과 반(反)-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이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면서까지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주제가 될 위험이 있었다. 아렌트는 이에 대항하는 경고를 내린 바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전체주의를 이 세기의 재앙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용이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소한 악들과 그리 사소하지만은 않은 악들을 간과하게 될 정도로 전체주의에만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⁸⁾

나의 마지막 우려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유럽의 기억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로 쇼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전멸될 뻔 한 것은 시오니즘(Zionism)⁹⁾이 옳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었다. 유대인들은 비(非)-유대인들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도, 번영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유럽의 민족과 문화에 통합,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적인 망상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만의 국가를 가졌어야만 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관점—유럽의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몰락을 도모했고 그들은 마치 “순한 양처럼 유순하게 도살장으로” 들어 갔었다는 입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정체성이 유대인들의 과거를 거부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겪은 대재앙을 유약함의 증거로 간주하는 것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스라엘의 숙명은 새로운 종류의 유대인을 길러냄으로써 그 유약함을 극복하는 것이었다.¹⁰⁾

8) *Essays in Understanding*, pp.271-272.

9) [옮긴이 주]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민족 운동을 지칭한다.

10) Idith Zertal, *Israel's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Nationhood*,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이스라엘과 홀로코스트의 관계는 변화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1967년 정복 이후 그들이 (요르단 강 서안 지역)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옹호자들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비판한다면, 그것이 곧 반(反)-유대주의라는 악마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비판이 반(反)-유대주의를 유발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反)-유대주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反)-유대주의가 앞으로 특정한 길을 (혹은 과거로 회귀하는 길을) 연다는 것이다. 1938년으로, 수정의 밤(Kristallnacht)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트레블린카(Treblinka)와 아우슈비츠로 말이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반(反)-유대주의가 어디로 향할지 알고 싶다면, 당신은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Yad Vashem)이나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혹은 유럽 전역에 있는 다른 수많은 기념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러한 주장 배후에 깔린 정서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주장 자체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람들이 편견의 망령들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면 안된다며 나를 비롯한 몇몇 이들을 나무랄 때, 나는 거꾸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말한다. 반(反)-유대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금기 그 자체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있는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전후 유럽의 역사와 쇼아에 대한 기억에 관하여 강연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속한 대학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반(反)-유대주의의 역사적 결과들, 혹은 악의 문제에 대한 일깨움이 불필요하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의 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말이다. 이는 마땅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translated by Chaya Gala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특별히 1장 "The Sacrificed and the Sanctified"를 볼 것.

질문들이 꽤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왜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이토록 집중하나요?” “왜 [어떤 나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불법인데, 다른 대량학살들을 부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반(反)-유대주의의 위협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요?” 또한 점점 더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핑계거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들은 기억이 없다.

나의 두려움은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강조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현재의 사건들과의 연관 속에서 홀로코스트를 소환하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옹호할 때마다 “반(反)-유대주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냉소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실존적인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서양에 사는 유대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맞닥뜨렸었던 위협이나 편견들에 간접적으로라도 비견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직면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겪는 것은) 현재 다른 소수자 집단들이 겪는 편견들과도 비할 바가 아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상상해 보자. 당신이 현재 미국에 사는 이슬람교도나 “불법 이민자”라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받고 환영 받는다고 느끼는가? 영국 내 여러 지역에 사는 “파키스탄 출신”(Paki)이라면? 네덜란드에 사는 모로코 사람이라면? 프랑스에 사는 북아프리카 출신(beur)이라면? 스위스에 사는 흑인이라면? 덴마크에 사는 “외국인”(alien)이라면? 이탈리아에 사는 루마니아인이라면? 유럽 전역에 있는 집시(Gypsy)라면 어떠한가? 혹시 당신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어떠한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욱 더 그 사회에 통합되고, 그 일원으로 인정 받는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나라들 중에 다수에서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에서는) 유대인 집단이 기업, 미디어, 학계에서 현저하게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 중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낙인이 찍히거나, 위협받거나, 혹은 배제되지 않는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신경 써야 하는 위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른 방향을 향한 위협이다.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지키는 것에 너무나 확고하게 결부시켜 온 까닭에 그것의 도덕적인 의미를 특정 지역에 국한시킬 위험이 있다. 아렌트를 다시 한 번 소환하여 20세기의 악의 문제를 묻는다면, 물론 그것은 독일에 의한 유대인 몰살 시도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독일인들에 대한 것만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단지 유럽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주의라는 악 혹은 대량학살이라는 악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가 특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숨겨 좋게 처리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유럽 사람이 아니어서 혹은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럽의 범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기억이 그들 자신과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더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홀로코스트는 그 보편적인 울림과 공감을 잃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기를 희망해야만 하며, 쇼아가 진정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핵심적 교훈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교훈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모욕당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교훈이 실제로 의문시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거나, 이 교훈 자체가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리핀(The Gryphon)이 관찰 했던 바와 같이, 교훈의 문제는 정말로 그 효과가 나날이 줄어들다는 것이다.¹¹⁾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서양의 선진국 이외의 곳으로 가서 아우슈비츠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바란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대답들을 듣지 못할 것이다.

11) [옮긴이 주] 주트는 여기서 루이스 캐롤의 1865년 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리핀의 재치 있는 대사를 상기시키고 있다. “교훈이 교훈(lesson)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핀이 말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효과가 줄어들거든(lessen).”

이 문제에 대한 쉬운 해법은 없다. 오늘날 서유럽인들에게 명백해 보이는 것이 많은 동유럽인에게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똑같은 것이 40년 전에는 서유럽인들 자신에게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아우슈비츠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충고들은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 매우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내 세대 사람들에게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기억에서 역사의 장으로 사라져 가는 유럽의 과거를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잃어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단지 부분적으로라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박물관들과 기념관들 그리고 의무적인 수학여행은 우리가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참회를 모두 마쳤으며 이제는 거기서 손을 떼고 망각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억의 역할을 맡아줄 기념비들을 남겨 놓고 말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지난 번에 내가 베를린에 위치한 학살된 유럽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관¹²⁾을 방문했을 때, 의무적으로 견학을 온 지루해 하는 학생들이 기념물로 세워진 돌들 가운데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만약 역사가 과거 범죄들과 다른 모든 것들의 증거를 영원히 보존하는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역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과거를 파헤쳐 낼 때, 즉, 우리의 목적에 맞게 역사의 파편들을 선별하고, 기회주의적인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역사를 끌어들이는 때, 우리는 나쁜 도덕과 나쁜 역사 모두를 얻게 된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평범성(banality)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명 높은 평범성이 있다. 충격적이지만, 정

12) [웁긴이 주] 피터 아이스만(Peter Eisenman)이 설계하고 2005년에 개관한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을 말한다.

상적이고, 친숙하고, 일상적인 인간들의 악이다. 그러나 또 다른 평범성도 있다. 동일한 것을 너무 자주 보거나 이야기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초래하는 그 의미의 축소와 둔감화 효과를 뜻하는 남용의 평범성이다. 그 결과 우리는 청중들의 감각을 잃게 하고 그들을 우리가 묘사하는 악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평범성, 혹은 “평범화”(banalization)이다.

1945년 이후, 우리의 부모 세대는 악의 문제를 제쳐 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속 세대는 이제 악의 문제가 너무도 적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 둘 위험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악의 문제가 지적인 삶을 위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유럽에서 뿐 아니라) 남도록 보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옳은 질문이라는 점은 꽤 확신할 수 있다. 이 질문은 60년 전에 한나 아렌트가 물었던 것이고,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을 것이다.

번역 투고일	2022. 1. 16.
심사 완료일	2022. 2. 18.
수정본 제출일	2022. 2. 24.
번역게재 확정일	2022. 2. 26.